

2016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2016년 12월 27일(수) 오후 5시
- 장소: 시민공간 나루 2층 환경정의 회의실
- 참석자: 강장묵, 김민철, 김주일, 김영홍, 박준우, 채연하
- 참관: 최승우, 김미현

주요 결정사항

1. 빅데이터 이슈에 대해 단체 내의 이해를 높이고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워크숍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기로 함
2. 운영위원들의 상호 이해 및 교류의 확대를 위해 포럼 혹은 릴레이 칼럼 집필 등을 기획하기로 함

회의록

보고사항 전체에 대해

- 박준우 보고
- 강장묵: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NIA 쪽, 또 제가 금융보안국 평가단에 참여 중인데 보험회사나 카드사 등 빅데이터 개인정보 관련된 움직임이 매우 많음. 여기에 대해 대응해야 함. 빅데이터 문제에 대해 단체의 입장을 정리하여 소신있게 입장을 낼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오해가 있음. 정보 성격에 따라 빅데이터 이용방식이 모두 다른데 비식별화만 하면 되는 것처럼 논의하는 문제가 있음. 자칫하면 비식별화만 하면 침해에 대해 면책을 제공할 위험이 있음.
- 채연하: 서울시에서도 정보 공유 얘기하면서 카드사 빅데이터 제공할 때 다 비식별화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함.
- 강장묵: 면책주는 조항이 없어져야 함. 빅데이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임..
- 김주일: 빅데이터 문제의 쟁점들에 대해 잘 모르므로 단체에서도 이해를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듯.
- 박준우: 연초에 몇 차례 쟁점별 워크숍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 김주일: 생활안전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는지?
- 박준우: 보고드린 대로 공원/가로수 농약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중. 결과 바탕으로 1월에 추가 정보공개 청구하게 됨. 그 외에 이슈 조사와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주로 진행되었음. 1월까지 시범사업 마무리되면 본 계획 제출할 것임.
- 김주일: 산업안전 영역은 포함되지 않나?
- 채연하: 당연히 포함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 같은 이슈라던가..

- 김주일: 최근 정국 관련해서 고유의 프로그램은 계획하지 않나? 대선 관련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지?
- 박준우: 아직 거기까지는 내년 계획을 준비하지 못했음.
- 최승우: 탄핵 이후 대선 정국이 되면서 지역에서 의견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약화되었음.
- 김주일: 간담회 때는 어떤 얘기가 주로 되었나?
- 채연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중심으로 이야기했고, 이후에 또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임.
- 김주일: 또 하나가 좋은기업과 관련해서 재벌개혁, 전경련 해체 문제가 있음.
- 박준우: 참고로 주요 단체들 중심으로 4대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한겨레신문 등과 공동 기획을 할 예정이라고 함. 검찰 개혁은 참여연대와 민변, 사회불평등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정치 개혁은 비례민주주의연대, 에너지 개혁은 녹색당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
- 김주일: 운영위원들이 아직 친하지도 않고 같이 하는 일이 많지 않음. 운영위원 포럼 같은 거 생각해볼 수 있음. 다달이 돌아가며 칼럼을 게재한다던가.
- 박준우: 너무 반가운 제안임. 언론사를 섭외해보면 어떨까 싶음.
- 김주일: 이필상 교수님이 출근하시는데 단체 차원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 채연하: 일단 팟캐스트를 진행할 예정임. 좀 전에 말씀하신 임원단 칼럼 같은 거 하면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임.
- 김주일: 더 이상 안건이 없다면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기로 함.